



[뉴스] 文 대통령 신년사 발표
완전한 위기극복
메시지 전한다
02



Economy

코스피	2977.65 (0.00)	코스닥	1033.98 (0.00)
금리 (미국 3년)	1.798 (-0.001)	환율 (원/달러)	1188.80 (+2.30) (12.31)

대선·ESG·디지털... 한국號 중심에 MZ세대 있다

2022년 대한민국(號)은 중대기로에 놓였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는 물론 오는 3월 청와대의 새 주인도 선택해야 한다. 절망하고 있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 해결도 과제다. 물가상승 등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에 꾀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의미하는 '뉴노멀'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 '코로나19 이후 한국호(號)의 희망찬 미래'를 꿈꿔본다. <편집자주>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號

임인년 화두 'MZ세대'

MZ세대, 전체인구의 35% 육박
기업 경영자부터 ESG경영까지
트렌드 넘어 생존 문제로 직결
공정한 보상으로 눈높이 맞춰야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사에선 재택근무, 학교에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됐고, 기업들은 산업 유통 금융분야를 불문하고 디지털(Digital)로 전환했다. 올 한해는 산업 전반에 'MZ세대의, MZ세대에 의한, MZ세대를 위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MZ세대는 1980~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은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은 미래시대에 대비하면서도 현재 자신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공정'과 '합리적 보상' 안에서 처리하길 원한다. 익숙한 디지털을 활용해 환경문제를 이슈화 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멀리 하는 것(불매운동)도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모든 기업과 산업군이 MZ세대를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춰갈 전망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에 해당하는 인구는 총 179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34.7%를 차지한다. 이들을 이해하는 기업만이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다.

기업들은 우선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MZ세대로 교체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1981년생인 최수연 글로벌사업 지원책임자를 CEO로 내정했다. 삼성전자는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30대 인제 4명을 임원으로 발탁했다.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경영도 기업의 화두다. 현대차는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친환경차를 상용화했다. GS그룹은 PB상품에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문서를 최소화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기업의 ESG경영을 평가해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정치권에도 새로운 바람이 예상된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 투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배구조를 재정립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 긴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평이다.

<8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호랑이 기운으로 힘차게 출발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다. 올해 대한민국은 다양한 이슈와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야 하고, 새 대통령도 뽑아야 한다. 빈부격차 해소는 물론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은 2022년, 희망이 되살아 나갈 기원한다. 용인 에버랜드의 타이거밸리에서 생활하는 엄마 호랑이 건곤이가 아기 호랑이들과 산책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삼성·LG 등 K산업 첨단기술력 뽐낸다

CES2022, 韓 역대 최대기업 참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가 현실로 돌아왔다. 지난해와는 달리 현장 전시 규모를 다시 확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더 빠르게 발전한 첨단 기술들을 전세계에 소개하게 됐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에서도 우위를 지켜낼만한 '초격차' 솔루션을 대거 출품했다. 전자업계는 물론 자동차와 중공업, 스타트업 등 여러 업계 400여개사가 총출동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CTA)는 오는 5일부터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2를 개최한다. 당초 8일까지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급하게 일정을 축소했다.

◆삼성·LG 신가전 리더십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CES2022 문을 여는 기업으로 낙점됐다. 새로 DX부문을 맡은 한종희 부회장이 '공존의 시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술도 대거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CES2022 티저 영상에서 '외계인'

이미지를 노출하며 기대감을 높인 상황, 연결성을 대폭 높일 통합 솔루션과 환경을 지킬 새로운 반도체 및 가전 제품 등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갤럭시 S21 FE도 유력한 신제품 중 하나다.

LG전자는 올해에도 신가전을 대거 내놓고 전세계 생활가전 업계 리더십을 본격화하려는 모습이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일상'을 주제로 'LG 홈'과 'LG 씽큐', 오브젝트렉션을 기반으로 한 가전들과 '퓨리케어 에어로타워'와 'LG 락온' 등 혁신 가전을 선보인다.

<8면에 계속>

/김재승 기자 juk@

SAMSUNG

더 나은 미래로
모두가 꿈을 향해
성큼 나아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